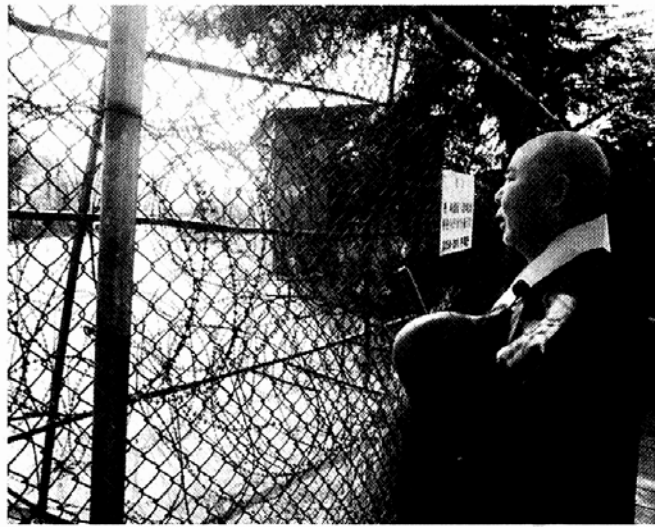


◇ 일선 스님께서 평화통일 기도를 하는 일진각. 일반인들에게는 안보관광이지만 스님에게는 통일염원의 수행도량이다.



◇ 6·25전쟁 때 임진강을 두고 수많은 군인들이 전사했다.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일선 스님은 수시로 천도의 염불을 한다.

치우쳐서도 안됩니다. 통일의 염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서원이기에 가장 순수하고 지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이제까지 불교는 무슨 행사나 법회 때 으레 '남북평화통일기원'이란 말을 붙여 왔어요. 그러나 통일기도는 부처님오신날이나 6·25 발발 일, 또는 예불 때 주로 하는 요식행위로 한정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가득했는지 묻고 싶어요.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 사람이 평화통일의 시금석 역할을 하는 통일원찰이 되었으면 하지요. - 남북의 활발한 교류에 대비해 불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요. 하지만 먼저 민족바로살리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이 지난 55년간 쌓여진 민족상잔의 비극과 적대심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 적대감을 녹이고 화해한다면 평화적 통일은 어느새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갈수록 남북관계는 적대의 기류보다는 화해의 손을 잡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불교가 이

일도 안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조차 서둘러 얻을 수 있다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서둘러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디다. 깨달음도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통일이 눈앞에 온 것처럼 너무 떠들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들뜬 상태에서 너무 서두르면 달걀만치 어긋나도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생기는 법입니다. 경전에 '야정수한어불식(夜靜水寒魚不食)'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요한 밤에 물고기가 물을 먹지 않고 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러한 여유로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통일은 안정된 가운데 조용히 평

묵묵부담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라도 평화통일의 발을 일구는 통일소가 되어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 실함민들의 아픔과 국민의 염원을 씻어 달라는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소들을 일일이 어루만지며 '너희들이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전법사로 모든 북한동포의 평화통일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마리의 소가 사람 1백 여명의 뉘를 한다든 말처럼 북녘 땅 곳곳에 퍼져 통일의 장애가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길 지금도 서원하고 있습니다. - '조국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적힌 명함이 이색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 나의 소임은 통일의 길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생각했던 것을 다시 시도할까 합니다. 서부전선 최전방인 문산 지역의 스님과 실함민들을 비롯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가칭' 평화통일기원회를 구성, 평화통일불사를 촉성해 하고 싶습니다. 남북한 스님들이 공동으로 6·25전쟁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재를 비롯 실함민과 군불자교교 등이 주된 활동이 되겠지요. 수행자가 된 이상 무언가 한가지는 딱 부러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전에 통해 바다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 위해 참새가 생사를 걸고 삼세에 걸쳐 바닷물을 물어 날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평화통일도 한달음에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관계가 때가 되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다가올 평화통일의 그날을 위해 자신을 가다듬고 탐진 삼독의 때를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일심으로 평화통일기도에 동참하는 '통일의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한민족 간절한 소원은 통일 통일염원과 수행 둘 아니죠”

런 상황을 의면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북한을 아우르는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의 할 일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교리적으로나 민족정서로 보나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준비에 있어서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하나 짓고 개인의 복을 비는 것도 종교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족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상호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제 불자들은 더 큰 보살심으로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행이자, 한국불교가 전세계로 뻗어 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모두들 너무 들떠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서두르면 될

화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항상 부드러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야심이 너무 크면 자칫 바위처럼 단단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통일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었습니까. 지금은 모든 욕망과 질투를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내면을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한민족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 말, 몸, 우월감, 욕심, 어리석음의 때를 벗겨내세요. 남북이 그러한 본 모습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통일소 북송길 환송기도 - 스님께서는 지난 98년 6월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5백 마리의 통일소를 물고 북송길에 나설 때 목탁을 치며 기도해 사회적으로 눈길을 모은 적이 있었지요. ▲ 통일소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게는 얼마나 기다려 왔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비록 축생이지만 사람대신 통일의 선봉대로서 북으로 가는 소를 보고 통일 수행자로서

대답=김종근 기자 (gamja@buddho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opia.com)

지옥스님의 스님이야기

■ 정화스님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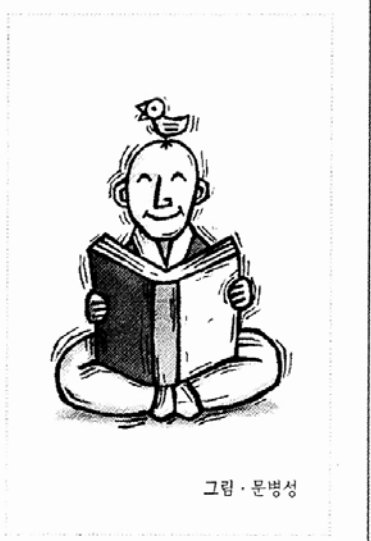
目無所見 無分別(목무소견 무분별) 耳聽無音 絕是非(이청무음 절시비) 눈으로 봐도 본 바가 없어 분별심을 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시비심이 끊어졌다. 내가 아는 정화 스님은 그런 스님이다. 눈으로 봐도 본 바가 없어 분별심을 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시비심이 끊어진 스님. 송광사 행사실에서 만난 적이 있고 해인사 강인 도반으로 함께 수행했다. 정화당(正和堂)이 이 글을 읽고 후 '미친 짓 이어!' 할 지 모르겠다. 그는 내가 아는 도반 가운데서도 매우 과격하고 무소유 실천자이다. 거지 수행자가 세계 각국에 많이 있지만 그는 진짜 거지 수행자이다. 버스를 탈 적에는 500원만 있어도 태연하다. 옛날에는 버스 여차장이 있어서 버스를 끊어주곤 하였

명치가 큰 편인 그는 부엌일을 잘해 썼다. 무어나 잘 소화시키는 그를 두고, "스님들이 다 됐기에 쓸 만한 남자가 없어요. 하하하" 하고 한 처녀가 우스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공부라든... 글세, 눈높이가 같아야 알아보겠지... 그의 수준이 꼭 법상치 않은 걸로 알고 있다. 화두선에서 보다 남방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 유식(唯識)을 강의할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에게는 요즘도 여기저기서 법문을 청하는 이들의 연락 때문에 소란스러울 정도다. 그 래도 꼭 자기를 누르고 소리없이 사는 스님이 정화 스님이다. 화를 못내는 이는 바보이고 화를 안내는 이는 현자라고 한다. 스무 해 이상을 지켜 보았으나 정화 스님이 화 내는 모습을 아직 본 바가 없다. 실제 그는 바보가 아니라 아무래도 현자 쪽이 아닐는지.

그는 내가 아는 도반 가운데서도 매우 과격하고 무소유 실천자이다. 거지 수행자가 세계 각국에 많이 있지만 그는 진짜 거지 수행자이다. 버스를 탈 적에는 500원만 있어도 태연하다. 옛날에는 버스 여차장이 있어서 버스를 끊어주곤 하였

무소유 실천하는 도반 화내는 모습 본적 없다

대구에서 해인사를 갈려는데 무일푼이라 500원 주머니 돈을 다 털어서 사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자체가 어리매답다. 여차장은 버스에서 내려 해인사로 향하는 그를 불러 세우고는, "스님, 돈이 다 떨어졌는가 보지요. 여기 돈이 있으니 노자에 보태 쓰세요." 그가 건넌 500원과 함께 몇 장 지폐가 그의 손안에 쥐어진다. 하도 딱해 보인 까닭에 여차장이 보시를 한 것이다.



그림·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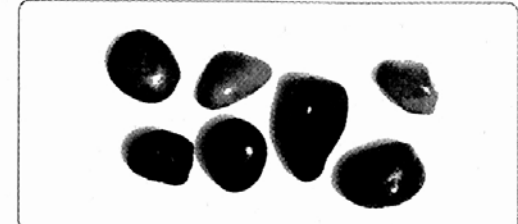
출가 전, 교사였던 그는 학생을 구타한 사건으로 출가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뒤 대담하게 구타했다기 보다 학생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 손찌검질을 가볍게나마 한 것이 그의 양심에는 큰 몫이 박히듯 부담스러웠나 보다. 평생 눈 한번 크게 떠보지 않은 그. 소리 한번 크게 지르지 않는 그인데 무슨 대단한 구타를 했겠는가. 선량한 그의 모습이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수행이 먼저야. 내 수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찌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있는가?" 그는 잠시 산중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 앞에 설 만한 자격을 갖춘 스승이 되어보겠다는 생각이 그간 종신 수행 길에 들어 서고 말았다. 수행은 이렇듯이 끝이 없는 것인가. 정화 스님으로 계를 받기까지도 이 절 지 절을 다녔다. 송광사에서 해인사까지 텔레레 걸어서 갔다. 행자로서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행자로 보통 여섯 달을 지내면 사미계를 받고 예비 스님의 길을 걷는 데도 그는 사양하였다. 그는 그런 스님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괴심(自愧心) 때문에 잠 못 이룬 나날이 많았다고 한다.

강원 하반 시절에 상반의 '시집들'이 얼마나 선 지 정말 고추보다 매웠다. 그가 반장을 하면서 공사가 벌어졌을 때 아주 접점이 상반의 체면도 세워주고 하반의 입장도 살려주었다. 정화 스님은 공손한 말씨 하나가 일품인데 극한상황에서도 요지부동으로 흔들림이 없다. 소 눈망울처럼 말뚝뚝 뜬 그의 눈을 보노라면 저절로 존경이 생긴다.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생활 속의 유식 30송> 외에 재작년에 <함께 사는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책이 나왔다. 스님이 쓴 게 아니고, 그의 금강경, 반야심경 강의를 청강한 이들이 녹음해 두었다가 테이프 내용을 채록해서 책으로 엮은 것이다. 그를 따르는 이들도 무척 존경하는 분위기이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노 라면 사람이 참 진실하구나. 하느 느낌이 저절로 오는 모양이다. 하나같이 정화 스님을 믿고 존경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말이다. 누가 이 시대에 공부하는 스님이 적다고 했는가. 정화 스님 같은 이를 만난다면 생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구도자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소유 수행자의 본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신축개관 1주년 기념특별전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전이 많은 불자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성원으로 지난 2일 개막 이래 연일 3,000여 명이 입장하는 등 성황을 이루어 지금까지 약 3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사리장엄구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불교예술품으로, 1996년 발견된 후 보존처리를 거쳐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감은사동탑 사리구를 비롯하여 전국 50여 기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와 1,400년만에 처음 공개되는 부처님 진신사리도 친견할 수 있는 금생(今生)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자들은 모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쌓아 업장소멸하시기 바랍니다.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 ~ 7월 31일까지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 오후 7시(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입장료 : 개인 3,000원 / 단체 2,000원
- 예약안내 : 전화 0523) 384-0010, 팩스 0523) 384-0030(담당자 : 이승현) (연락시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상인원, 인솔스님 병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부산, 울산, 경주 등 가까운 지역에서 친견을 오실 때 30인 이상 단체일 경우 박물관 버스(45인승)를 운행해 드립니다.

경주 감은사 동상층석탑 출토 금동전각형 사리기